

나를 바꾸는 글쓰기 04

2-2. 내 언어의 간격 (교재 48-59쪽)

수업 진행 안내

2-2. 1. 입장하기 :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예 소개

2-2. 2. 깊이 들여다보기 :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띄어쓰기 유형 소개

2-2. 3. 글 써보기 : 원고지에 맞춤법에 맞추어 써 보기

2-2. 내 언어의 간격(띄어쓰기)

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 유형 6개

유형	예문
조사(붙여쓰기) 의존명사(띄어쓰기)	아무리 <u>먹을 만큼</u> 먹었다고 해도 개가 <u>나만큼</u> 먹을 리가 없는 데.
의존명사(띄어쓰기) 연결어미(붙여쓰기)	비대면 수업이 언제까지인지 <u>확인해</u> 보고, 저번에 <u>접속했던</u> <u>데</u> 서 만나자.
1음절 관형사(띄어쓰기) 접두사(붙여쓰기)	면접에 <u>맨 먼저</u> 연락했는데 <u>미성년자</u> 라는 이유로 고용되지 못했다.
명사+되다/하다/시키다/당하다/받다	<u>밥하다</u> 말고 <u>공부시키는</u> 교수님 덕분에 나는 <u>고통당하고</u> (<u>고통 받고</u>) 있다.
못/안/잘+하다의 띄어쓰기 붙여쓰기	나는 수영을 <u>못해서</u> 바다 가기가 무서워. 이번에 합격이 <u>안 돼서</u> 상황이 많이 <u>안됐어</u> .
'밖에' 띄어쓰기 붙여쓰기	<u>방 밖으로</u> 좀 나가 봐라. 이런 말해 주는 사람이 <u>나밖에</u> 없지?

2. 2-2. 내 언어의 간격(띄어쓰기)

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예(교재 48-49쪽)

로빈 : 저희 부모님처럼 동거를 죽을 때 까지 (→ **죽을 때까지**) 하는 것이
~까지는 앞말에 붙여 씀

장위안 : 중국에서 결혼 못하면 효도 못한 (→ **못 하면, 못 한**)사람이라는 말이 있
는데

‘못하다’ :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해내지 못함.

‘못 하다’ : 안 했음.

뜻을 구분해서 쓸 것.

1) 조사와 의존명사(51쪽)

① **조사** : 붙여 씀 / 격조사(주어, 서술어 표시해 주는 조사), 보조사(뜻을 더해 주는 조사)

예) 나는 사과를 먹는다. / 너까지 이러지 마라. / 백점은커녕 빵점.

외 조사(뜻을 더해주는 보조사)의 예 : 까지, 마다, 부터, 로부터 : 붙여 씀.

② **의존명사** : 띄어 씀 / 다른 단어 뒤에서 명사 역할을 함

예)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! / 할 수가 없네. / 과제 엉망인 채로 냈어.

그 외 의존명사 : 것, 때문, 채, 수, 텐데, 간, 내, 등, 외, 중, 바 : 띄어 씀

51쪽 문제 : 조사로도, 의존명사로도 쓰임

뿐, 대로, 만큼, 만 :

명사, 대명사, 수사와 쓸 때는 조사(붙여 씀) : 나뿐, 너대로, 나만큼, 너만

동사, 형용사와 쓸 때는 의존명사(띄어 씀) : 갈 뿐, 할 대로, 큰 만큼, 할 만

(1) 다른 것은 몰라도 철수는 운동만큼은 누구보다 잘 해.

(2) 나는 그저 집에 갔을 뿐이다.

(3) 너는 너대로 네 갈 길을 가.

2) 의존명사와 (연결)어미(52쪽) : 지/데

연결 어미 : 동사의 끝에 붙어 의미를 더해주고, 다음에 오는 말과 연결하는 단어 같은 단어가 의존명사(띄어 씀)일 때와 연결어미(붙여 씀)일 때

예) 너랑 **만난 지**(기간-의존명사) / 오늘 만났는지(의문-연결어미)
너랑 **간 데**(장소-의존명사) / 너랑 가는데 힘들더라(연결어미)

52쪽

- (1) 나는 무엇을 **먹을지** 아직 정하지 못했어.
- (2) 그와 **헤어진 지** 20년이 흘렀어.
- (3) 오늘 비가 **내리는데** 부침개 먹을까?
- (4) 친구들 **노는 데** 찾아갈 거야?

3) 1음절 관형사와 접두사(53쪽)

관형사 : 명사 앞에 오는 말로, 뒤에 붙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밈, 띄어 씀

예) 각, 매, 고(故), 본, **총**, 귀, 제, 근, 맨, 새, 헌, 순

각 가정, 매 순간, 고 김복동 운동가, 귀 회사, 제 비용, 맨 먼저, 새 옷, 헌 신발, 순 살코기, 총 삼만 원

총('모두 합하여 몇임을 나타내는 말'인 '총'은 관형사)

접두사 : 명사 앞에 붙여 쓰는 말.

예) 미, 신, 구, 대, 대 / **총**, 제, 고, 구, 반, 부, 저, 초, 최, 한

미성년, 신세대, 구세대, 대가족, 대국민 사과문

총('전체를 아우르는' 또는 '전체를 합한'의 뜻을 나타내는 '총-'은 접두사. 예는 '총진격', '총감독' '총결산', '총생산량')

53쪽 문제 풀어보기

- (1) 우리나라 국민 **총생산량**은 얼마나 되지?
- (2) 이런 이유로 **귀 회사**에 지원했습니다.
- (3) 나는 돼지비계 말고 **순 살코기**가 좋아.
- (4) 이곳은 **미성년자**가 출입하는 곳이 아니야.

4) 명사(또는 어근)+하다

(1) 명사+하다=서술어인 경우, 한 단어로 취급하여 붙여 쓴다

ex. 공부하다, 청소하다, 연구하다, 머리하다, 밥하다

-> 공부하다 밥하다 청소하다 언제 일하나.

(2) '되다, 시키다, 당하다, 받다'

ex. 사회화되다, 청소시키다, 고통당하다, 고통받다

-> 문법을 공부시키는 교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.

5) 부사+용언

(1) 부사 '못'

더워서 공부를 못 했다. →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.

철수는 공부를 못한다. →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.

노래를 잘한다. → 능력이나 자질이 뛰어나다.

(2) 부사 '안'

철수는 이번에 합격이 안 됐어. → 부정문을 만드는 '안'

자식이 참 안됐다. → 안타깝다, 안스럽다.

6) 기타

- (1) 밖에 : 명사(띄어 씀), 보조사(붙여 씀)
 나는 밖에 나가고 싶다. (명사, 띄어 씀)
 그렇게 말해주다니, 너밖에 없다. (보조사, 붙여 씀)

55쪽

- (1) 그는 자기 **자신밖에** 모르는 이기주의자야.
 (2) 네 친구가 지금 **집 밖에서** 너를 기다려.
 (3) 그 사람은 여행을 가지 **못한다**. (하지 못하다의 경우 붙여 씀)

6) 기타 - 성과 이름

ㄱ. 성과 이름은 붙여 쓰기

ex. 유관순 / 남궁억

ㄴ. 호칭과 관직명 등은 띄어쓰기

ex. 최치원 선생/ 박동식 박사, 홍길동 님
김 씨 / 김해 김씨

55쪽 (4) 최치원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조기 유학생이야.

6) 기타 - 한 단어로 굳어진 표현

- ㄱ. 이때, 그때, 저때 / 전날, 훗날, 뒷날 / 이번, 저번 / 이달, 그달, 지난달
- ㄴ. 이곳, 그곳, 저곳 / 이쪽, 저쪽, 그쪽 / 이편, 저편, 그편
- ㄷ. 이분, 그분, 저분
- ㄹ. 그동안, 그사이, 아무것, 아무데, 어느새

3. 글 써보기(57쪽)

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, 다음의 글을 원고지에 띄어쓰기해 적어 보자.

『열하일기』나『왕오천축국전』을 읽는 재미 중 하나는 두 여행기 모두 처음의 도와는 다른 길로 접어든다는 점입니다. 박지원의 애초 목적지는 북경이었고, 해초도 지금의 인도인 천축국을 둘러보는 정도였겠지요. 그러나 모든 여행이 그렇듯, 길 위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, 그들의 여정은 바뀌고 맙니다. 반복을 혐오하고 최초를 지나치게 아끼는 예술가일수록 이 막막하고 먹먹한 날들에 이끌리지요. 그 날들을 박지원처럼 펼쳐보이느냐, 혜초처럼 발바닥에 숨기느냐는 다음 문제입니다. 여행과 글쓰기가 각각 이러하다면, 여행하는 글쓰기 혹은 글쓰는 여행은 더욱 부딪힘이 격렬하고 감정의 골도 깊을 겁니다.

	『	열	하	일	기	』	나		『	왕	오	천	축	국	전	』	을		읽
는		재	미		중		하	나	는		두		여	행	기		모	두	
처	음		의	도	와	는		다	른		길	로		접	어	든	다	는	
점	입	니	다	.		박	지	원	의		애	초		목	적	지	는		북
경	이	었	고	,		해	초	도		지	금	의		인	도	인		천	축
국	을		둘	러	보	는		정	도	였	겠	지	요	.		그	러	나	
모	든		여	행	이		그	렇	듯	,		길		위	에	서		뜻	하
지		않	은		일	들	이		생	기	고	,		그	들	의		여	정
은		바	뀌	고		맙	니	다	.		반	복	을		험	오	하	고	
최	초	를		지	나	치	게		아	끼	는		예	술	가	일	수	록	

골	도		깊	을		겁	니	다	.								
---	---	--	---	---	--	---	---	---	---	--	--	--	--	--	--	--	--